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薛 錫 圭(慶北大)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惟一齋 門人의 動向과 역할 |
| 2. 惟一齋의 人品과 학문경향 | 4. 맺음말 |

1. 머리말

惟一齋 金彦璣(1520-1588)가 활동하던 시기는 조선왕조가 정치·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격변기의 상황을 맞고 있던 때였다.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던 勳戚政權의 몰락과 士林勢力의 정국주도 상황의 대두는 필연적으로 정치 질서 및 사회·경제구조의 재편을 요구함과 동시에, 士林政治의 명분을 뒷받침할 이념적 토대구축과 함께 在朝 및 在野士林의 새로운 현실대응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16세기 전반 정국을 주도한 勳舊·戚臣勢力은 그들에 비판적인 士林勢力에게 士禍의 방법을 동원해 정치적 타격을 가하며 독점적 권력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그들은 이러한 배타적 권력을 배경으로 要職을 독점하는 한편, 갖가지 脫法的이고 不條理한 방법을 동원해 農莊을 점유하고 각종 利權에 개입하는 등 사적 경제기반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및 농가경제의 파탄을 유발하여 국가부도 사태와¹⁾ 함께 농민의 流亡에 따른 사회기층의 동요를 초

1) 당시 歲出入 통계를 보면 명종 즉위년(1545)의 경우 歲入이 260,414石인데 반해 歲出은 309,868石으로 5萬石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명종 19년(1564)에는 7萬石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는 만성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金盛祐, 「16세기 國家財政 수요의 증대와 國役體制의 해체」 『韓國史研究』97, 한국사연

래하게 되었다. 명종 14년(1559) 임격정(林巨正)의 난을 비롯해 대규모 농민 항쟁이 빈발하게 되는 것은 이미 훈척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²⁾ 그들 정권이 사림세력의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공세를 받으며 급기야 명종 20년(1565) 尹元衡의 실각을 계기로 붕괴되는 것은 파행적 국가경영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사림세력은 훈척세력에 대신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척정치의 잔재청산과 함께 士林政治의 구축방향에 대해서는 합일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과거청산을 통한 性理學的 질서확립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림세력이 學派를 매개로 분열하여 朋黨體制를 확립해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분열현상은 봉당이 학파를 매개로 하여 결성된 것에서 보듯이, 훈척정치의 극한적 상황에서 그들 학파 宗匠의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선택된 현실대응 자세에 연원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사실 훈척정치의 모순된 상황은 사림의 현실대응 자세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각각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실인식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것에 입각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出處義理를 정립했던 것이다. 花潭 徐敬德이 一氣長存論을 토대로 모순된 현실의 타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며 安貧樂道의 도피적 삶을 지향하고, 南冥 曹植이 理氣分對論을 근거로 善惡의 가치분별의 자세를 확립해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며 일관된 出處의 면모를 보이고, 退溪 李滉이 理氣隨乘論을 배경으로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개혁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탄력적 出處의 양상을 보이는³⁾ 등 출처의 차별적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의 出處義理가 성리학적 이기심성론에 근거하여 논리적 整合性을

구회, 1997)

2) 한희숙, 「16세기 임격정 난의 성격」, 『韓國史研究』89, 1995.

3) 薛錫圭, 「17세기 理氣心性論 발달의 역사적 의미」, 『國史館論叢』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확보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훈척정치라는 모순구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립된 것인 한 일정한 시대적 국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사림정치가 확립된 이후 栗谷 李珥가 이들의 학문을 비판하며 理氣妙合論에 입각해 적극적인 현실참여와 함께 타협을 통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이었다. 李珥의 그 같은 出處觀은 훈척정치 잔재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지만,⁴⁾ 현실의 모순된 상황과의 타협을 배제하며 개혁에 적극적인 退溪南冥學派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것은 결국 사림세력이 분열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退溪學派 내부에서도 현실대응 방안의 차이로 인해 趙穆 柳成龍·金誠一을 중심으로 月川系·西厓系·鶴峯系 등의 계파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퇴계학과 내부의 그러한 분화조짐은 물론 퇴계학의 현실적용에 대한 시각차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퇴계학이 제자들에 의해 일관된 형태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림정치의 확립과정에서 퇴계학파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正體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심화와 함께 내부적 결집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惟一齋 金彦機가 현실참여보다는 향촌에서 학문에 매진하며 제자들의 양성으로 일관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언기는 189명에 이르는 문인들의 양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양상은 퇴계학의 현실적용에 있어 계파간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퇴계학과 내부의 동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유일재 김언기의 학문적 경향과 학맥의 검토를 통해 16·17세기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시도한 것이다.⁵⁾ 먼저 그의

4) 薛錫圭, 「16세기 嶺南學派의 政治哲學 形成과 朋黨論」 『韓國의 哲學』2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9.

5) 惟一齋 金彦機의 활동과 업적에 대해서는 『陶山及門諸賢錄』이나 『嶺南人物考』, 『臥龍面誌』 등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 여

학문적 자세와 경향이 현실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處士的 삶의 본질을 규명해 본다. 이어 그의 학풍을 계승하는 門人들의 동향을 통해 그의 학문이 어떠한 방향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본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이 退溪學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惟一齋의 人品과 학문경향

金彦璣의 字는 仲晷이고 號는 惟一齋로 本貫은 光山이다. 光山 金氏의 始祖는 新羅 憲康王의 三子 興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의 家系는 興光의 20世 孫 刑曹佐郎 退村 閔을 派祖로 하는 退村公派에 해당한다. 金閔은 그의 5代祖로 洪貴達 등과 교류하며 특히 文章으로 명망이 두드러졌다⁶⁾고 한다.

김언기의 家門이 安東에 정착하게 되는 것은 閔의 曾孫이자 그의 祖父인 潭庵 用石이 豐山面 九潭으로 옮겨가면서부터였다. 그는 일찍이 估畢齋 金宗直의 門人으로서 南孝溫·姜應貞·申從濩 등과 교류하며 전국의 명승지를 유람하는 한편, 進士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朱子의 鄉約을 깊이 습득함과 동시에 매달 초하루마다 『小學』을 講論하며 鄉村教化 방안모색과 함께 스스로 道學者의 면모를 갖추는데 매진했다. 그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名選으로 일컬어진 것도⁷⁾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燕山君代 戊午·甲子士禍로 사람들이 被禍되는 등 그들이 지향하는 至治主義 이념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禍를 피해 가족을 이끌고 거주지인 楊根을 떠나 安東의 九潭에 隱居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언기는 중종 15년(1520) 用石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인 進士 籌와 竹溪 安氏 僉正 處貞의 딸 사이에 次子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天品이 맑고

기서는 그의 遺文과 行狀 등을 수록한 『惟一齋實紀』와 『龍山世稿』(天)의 「惟一齋逸稿」 및 『廬江志』를 주된 자료로 활용했다.

6)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7) 『惟一齋實紀』권2, 附錄 遺事.

밝았으며 방정하고 순진한 데다 德器마저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학문에 뜻을 둔 이래로 항상 부지런하고 독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공부할 때에는 문을 굳게 잠그고 靜坐하여 潛心한 가운데 經典의 講論을 통해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겼다. 그가 처음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退村의 文章과 潭庵의 學術 및 炳幾를 계승한⁸⁾ 것으로 평가되듯이 주로 家學에 토대를 두고 있었을 뿐 특별히 스승을 찾아가 배우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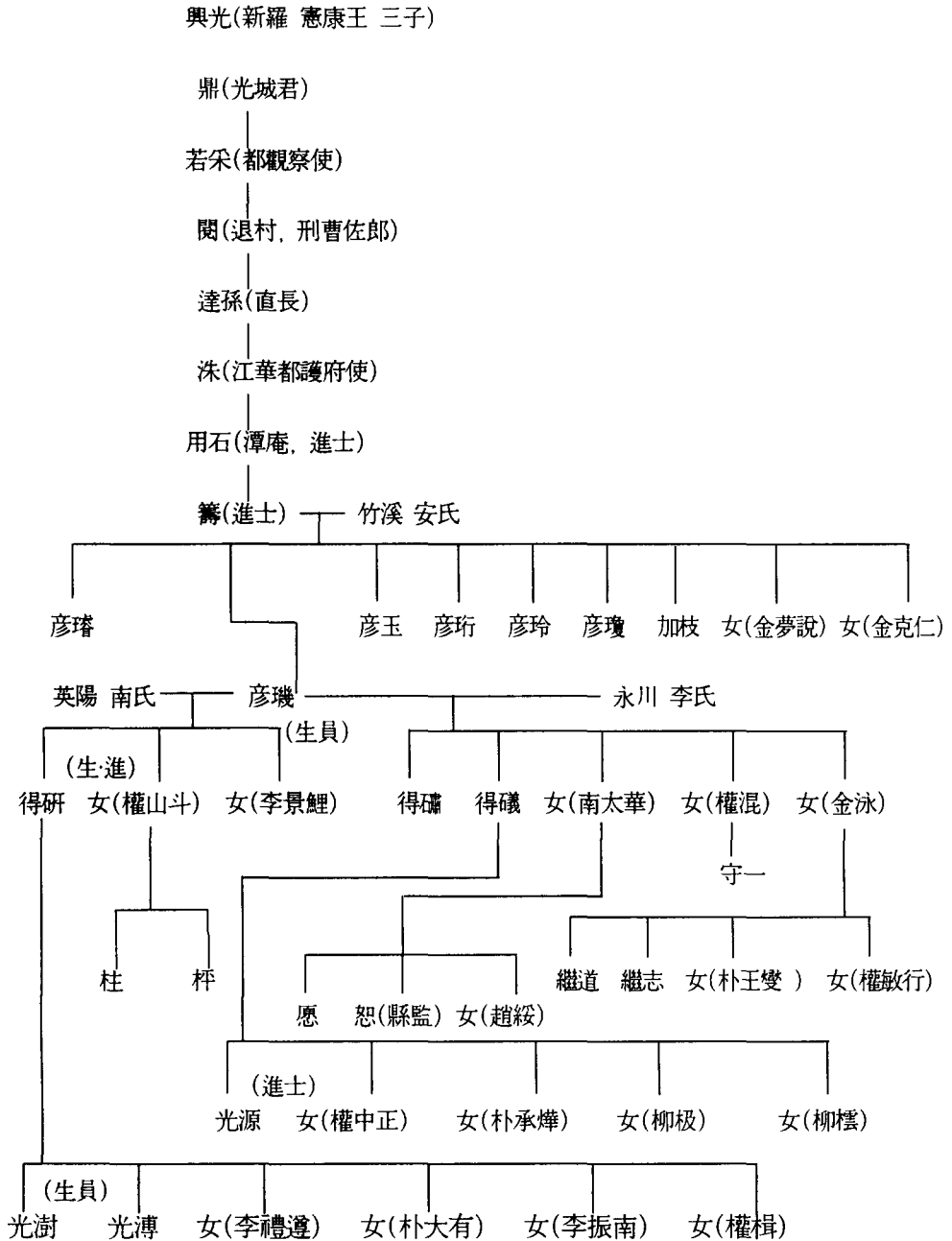
그의 가문의 학문적 성격 역시 전하는 것은 없지만, 그의 祖父 用石이 勳戚政治의 亂世를 피해 九潭에 은거했던 점에 비추어 科擧를 통한 현실참여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학문의 방향도 출발부터 經世를 위한 현실적 측면보다는 君子로서의 인품형성을 위한 원리적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록 修己의 학문에 치중하여 스스로 君子儒를 기대할 뿐 舉子의 業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자신의 학문적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治人의 포부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處士의 삶도 현실부정 내지는 도피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가 具鳳齡과 함께 10년을 기약하고 淸涼山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의 청량산 入山은 단순한 학문탐구의 차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고, 그의 확고하면서도 탄력적인 세계관과 현실대응 자세를 확립하는 발판이 여기에서 마련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산을 내려오며 청량산의 巖崖草木이 모두 독서한 字句로 보였다⁹⁾고 실토한 것은, 그의 학문과 청량산이 일체가 되었음을 자부한데서 나온 것으로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8)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入我朝爲名士大夫 而退村之文章潭庵之學術 足以垂光燾後 而潭庵之炳幾 爲明哲之首子... 先生資稟超詣襲訓趾美 固有異乎人者”

9) 『惟一齋實紀』권2, 附錄 墓碣銘 “與具柏潭鳳齡 入淸涼山 期以十年讀書 及出巖厓草木 盡成所讀書字云”

〈그림〉 惟一齋 金彦璣 家系圖¹⁰⁾



10)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 및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에 의거함.

사실 청량산은 退溪學의 발원지라 규정해도 좋을 정도로 退溪學派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이었다. 淸凉山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합해지는 陶山 자락 禮安 溫溪에서 태어난 李滉은, 어려서부터 자주 父兄을 따라 책 상자를 짊어지고 청량산에 머물며 경전의 탐구와 함께 성리학의 철학적 진전에 매진했다.¹¹⁾ 그리하여 그는 讀書가 遊山이자 遊山이 곧 讀書라¹²⁾며 틈틈이 이 산을 유람하면서 꿈속에서조차 자신과 산이 하나가 되었음을 노래하기도 했다.¹³⁾ 그의 학문을 계승한 門徒들도 이 산을 유람하며 千餘首에 이르는 많은 詩와 百餘篇의 紀行文을 남겼는데,¹⁴⁾ 이 가운데에는 金彥璣의 아들 金得研과¹⁵⁾ 弟子 申之悌의¹⁶⁾ 기행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량산은 조선시대 퇴계학파의 세계관과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모태이자, 중국적 朱子性理學이 한국적 退溪性理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산실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황을 비롯한 문인들이 청량산을 '吾家山'이라 즐겨 부른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물론 이황은 溫溪에 살던 그가 새벽에 산으로 출발하면 정오가 되기 전에 산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¹⁷⁾는 의미로 청량산을 吾家山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했고 그 문인들이 陶山書堂에서 講學을 받고 隴雲精舍에서 科業에 매진하면서 이 곳에 있는 淸凉精舍(뒤에 吾山堂)에서 철학적 사색을 통해 退溪學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吾家山은 이황이 이곳에서 一家를 이룬 곳이자 퇴계학파가 명실상부한 독자적인 학파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곳임을 내외에 선언하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기도 하다.

11) 『退溪集』권43, 跋 周景遊淸凉山錄跋.

12) 『退溪集』권3, 詩 讀書如遊山.

13) 『退溪集』권4, 詩 夢遊淸凉山.

14) 安東大學校 安東文化研究所, 『청량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2000.

15) 『葛峯集』(金得研)권4, 雜著 淸凉山遊錄.

16) 『梧峯集』(申之悌)권6, 雜著 遊淸凉山錄.

17) 『退溪集』권43, 跋 周景遊淸凉山錄跋 “安東府之淸凉山 在禮安縣東北數十里 而滉先廬居其程之半焉 晨發而登山 則日未午而腹 猶果然是 雖境分他邦 而實爲吾家山也”

해발 870m의 청량산은 1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규모가 작고 아담하지만, 깎아지른 암벽으로 이루어진 봉우리들은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 암벽의 정상부분은 다시 평평하게 구성되어 암벽을 감싸고 있는 듯하여 전반적으로는 온후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周世鵬이 “단정하면서도 엄숙하고 밝으면서도 깨끗하여 비록 작기는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산”¹⁸⁾이라 하고, “줄지어 선 봉우리는 물고기의 비늘과 같고 층층이 늘어선 벼랑은 꽃꽃하기만 하여 정녕 단아하고 곧바른 선비와 같다”¹⁹⁾고 한 표현이 실감된다. 따라서 이황이

清涼山 六六峰을 아느니 나와 白鷗
백구야 헌사하라 못미들손 桃花로다
도화야 떠나지 마라 漁舟子 알까 하노라²⁰⁾

며 자신과 산이 일체가 되었음을 노래한 것도 산의 면모를 자신에 투영시킨 것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金中淸이 이황의 端正, 重厚하고 淸明, 掃灑한 모습이 한 사람의 청량산이라²¹⁾ 표현한 것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李滉은 안으로는 깊은 계곡과 높은 절벽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밖으로는 낮고 완만한 형상을 드러내는 청량산의 모습에서 剛·柔를 兼備하면서도 外柔內剛한 인품과 처신의 방법을 배웠다. 그의 인품이 전반적으로 너그럽되 절제가 있었고 조화가 있되 휩쓸리지 않았으며 엄하면서도 사납지 않아, 순수하기가 良金美玉과 같았고 광명정대하기는 青天白日과 같은²²⁾ 것으로 평가된 배경도 여기

18) 『武陵雜稿』(周世鵬)권7, 雜著 遊清涼山錄 “至如端嚴爽介 雖小 不可狎者 唯清涼爲然”

19) 『松巖集』(權好文)권5, 錄 遊清涼山錄 “列巖鱗鱗 層崖矗矗 正如端人正士 整襟獨立 凡衆之所不能抗者”

20)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작품번호 2844.

21) 『苟全集』(金中淸)권5, 記 遊清涼山記并序 “當是時 文純之端重靜厚 淸明脫灑 實人之一淸涼也 山之爲淸涼 固不若人之爲淸涼 則世之人又安知淸涼之在淸涼耶 以故 士之遊者 不于淸涼 而于退溪 不吟弄於淸涼 而吟弄乎退溪”

22) 『文峯集』(鄭惟一)권4, 雜著 退溪先生言行通述 “莊正誠實 虛明洞徹 不設畦畛 不立崖岸 寬而有制 和而不流 嚴不至於猛 簡不至於傲 好古而不太泥 循俗而不苟同 純粹溫潤

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제자들에게 不仁을 보면 미워하되 성내지 않는 처신의 방법을 가르치는²³⁾ 한편, 奇大升에게도

무릇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出과 處, 遇와 不遇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義를 행함에 돌아갈 뿐으로 禍·福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東方의 선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志慕와 道義가 있는 자는 환란을 당하여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스스로 할 바에 진력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움이 지극하지 않으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自處하고 시세를 살피지 않고 經世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패망의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大名을 지고 大事를 맡은 자가 절실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²⁴⁾

며 학문적 성취를 통한 탄력적 出處의 자세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황의 剛柔兼全의 탄력적 인품과 출처관은 淸涼山을 모태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는 높고 험준하면서도 千仞絶壁으로 둘러싸인 智異山을 무대로 内外가 엄정한 剛毅直方의 세계관을 확립했던 曹植과²⁵⁾ 비교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金彥璣가 9년여의 장기간 동안 청량산에서 학문을 탐구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이는 그의 학문경향과 현실대응 자세가 청량산에서 형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자 이황의 그것들에 근접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의 구체적인 학문방향과 방법에 대하여는 전하는 자료가 별로 없어 상세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그가 저술한 「入德門賦」에서 그 대강이나마 파악할 수는 있다.

如良金美玉 光明正大如青天白日”

23) 『退溪全書』言行錄 권2, 類編 起居語默之節 “先生與衆人言 和說無諍 與大夫言 未嘗不正色極言辨之... 問見人之不善 輒加矜憐而不怒如何 先生曰 是或一道 惡不仁 亦公天下之心 要當并行為可耳”

24) 『退溪書集成』2冊, 59歲(1559)篇 答奇明彥 및 『退溪集』권16, 書 答奇明彥.

25) 薛錫圭, 『南冥學派 政治哲學 研究』, 남명학연구원, 2001.

그는 여기에서 우선 자신이 어릴 적 성격이 급하여 여러 갈래로 고민만 할 뿐 원대한 포부를 이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聖人の 가르침 속에 德에 들어가는 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뻐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는 그의 학문이 처음부터 科擧를 위한 時文보다는 德을 함양하여 君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뒤로 그는 本然의 기틀을 세워 지극한 道의 근원과 통하도록 하고, 規模를 넓고 크게 하여 근신하며 본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 이유는 먼저 天性이 공고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極에 도달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는 이같이 天性을 공고히 하여 학문적 私心이 생겨날 여지를 차단한 다음, 三綱五倫의 인륜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그래야 階級의 次序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 행동방향이 찾아지고, 人·鬼, 善·惡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뒤 立敎의 大本을 수립할 경우 우주를 널리 다스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같이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君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오로지 知止와 格致를 요체로 삼아 本末의 先後를 인식하고 誠正에 힘쓰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곧 안으로 存養動閑하고 밖으로 省察知取한 가운데 옹호하면서 惡을 제거하기를 마치 더러운 냄새에도 色을 좋아하듯이 할 때 一心의 白日과 萬事의 精粗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되 발걸음을 넓고도 탄탄하게 하여 風雨와 같은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心天의 光明이 있게 되는 것으로 한 걸음을 잘못 내디더 千里나 잘못된 길로 갈 우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스스로 경계하며 미덥지 못한 것을 삼가는 것을 요체로 한 가운데 하나의 敬만을 지키며 안을 끈고 하고 온갖 위선을 적으로 삼아 바깥을 방어할 때, 비로소 자신을 통해 남을 이해하게 되고 어디에 처해서도 治平의 大道에 어긋나지 않으며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上下, 四方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밖을 모범으로 하

면서 賢人과 친하고 利를 즐김에 각기 그 마땅함을 얻어 모두가 도덕적 규범의 관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德에 나아가는 極功이며 聖道の 보편적 庶幾라 규정했던 것이다.²⁶⁾

결국 김언기의 학문은 궁극에 經世家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일차적으로는 治人에 앞서 修己에 비중을 두면서 持敬과 存養을 통한 자신의 내면적 修身과 함께 부단한 省察을 통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자세가

선생의 용모는 몸집이 큰데다 嚴正·確實했으며 喜·怒를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村老들이 “우리도 일찍이 그렇게 밝고 가지런한 면모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전할 정도였다. 평상시 고요하고 묵묵한 자세로 있어 며느리나 부인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 이를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는 관대했으며, 얼굴에는 和氣로 훈훈한 기운이 있었다. 賢者는 사랑하고 공경했으며 不肖者는 보고 감화되는 바가 있었다. 일에 임하여 수작할 때는 포용하되 재촉하지 않았다. 움직임마다 義理에 합당하여 고을에 大事가 있으면 문득 선생에게 나아가 묻고는 했다.²⁷⁾

고 하듯이 그가 전반적으로 자신에 엄격하면서도 남에게는 厚德하고, 분별적 言事로 모든 행동에 합리성을 갖는 인품의 소유자로 평가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 같은 김언기의 ‘日用語默’의 가운데 ‘應事接物’하는 인품은 이황의 旨訣에 의지하여 外慕에 뜻을 버리고 進修에 태만하지 않은 소산이라²⁸⁾ 하듯이, 이황의 그것과 전혀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이는 이황이 평소 강직한 성품으로 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힘쓰지 않고 유순한 자는 서로 결정을 하지 못한 채 時流에 편승할 뿐이라²⁹⁾며, 剛·柔 일변도의 자세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剛·柔를 겸비한 가운데 사리분별을 통해 그것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점은 그가 선조 6년(1573) 廬江書院

26) 『惟一齋實紀』권1, 賦 入德門.

27)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28)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後敘.

29) 『退溪書集成』3冊, 60歲(1560)篇 答奇明彦.

의 賜額을 請願하기 위해 安東府使에게 보낸 편지내용 가운데 이황의 학문적 자세에 대해

退陶先生은 天資가 道에 가까웠고 빼어난 깨달음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기거할 때마다 聖賢을 흠모했으며 초연하게 홀로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師承을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窮理致知와 反躬踐實의 자세로 가까운 것에서 출발해 먼 것에 이르고 아래에서부터 위에 도달했으니, 進德의 뜻은 金石과 같이 견고했고 操省의 功은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博學約禮를 兩極에 두고 敬·義를 차고 지키며 精純溫粹의 면모로 圭角을 길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充養은 이미 오래였고 英華도 날로 밝아졌습니다.³⁰⁾

고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히 시사 받을 수 있다.

요컨대 김언기의 내면적 修身에 집중된 학문방향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현실 대응 자세는 家學의 전통을 근원으로 하면서도 李滉의 학문과 인품의 감화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다시 그들의 학문의 무대가 된 淸涼山에서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보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는 분명 이황의 학풍을 충실히 계승한 핵심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權斗經(1654-1726)이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溪門諸子錄』을 간행할 당시 李滉의 문인의 반열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李光庭(1674-1756)이 말년에 그의 行狀을 쓸 때 그의 人品과 학문경향을 비롯해 「上府伯書」의 내용 등을 근거로 그가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문인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추론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그가 문인이라는 주장은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가 왜 『계문제자록』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전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그렇지만 李滉의 6대손 李守貞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月川書堂에 갔을 때 故紙 무더기 가운데 趙穆이 직접 제자들의 성명, 나이, 관직과 두드러진 德과 造詣 등을 列書한 『同門弟子錄』에 김언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³¹⁾고 한다.

30) 『惟一齋實紀』권1, 書 上府伯權草濶(文海).

31)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後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계문제자록』에 수록되지 못한 것은 알려진 바대로라면 일단 그가 사망한 뒤 임진왜란으로 本家の 文籍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그들의 師承關係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계문제자록』의 편찬방식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곧 그것이 산재한 문인자료의 포괄적인 수집보다는 가문별로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수합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私藏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던 조목의 『동문제자록』을 후손들이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자료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계문제자록』은 당시 그 편찬방법으로 인해 상당수의 문인들이 제외됨으로써 적지 않은 물의가 빚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李守淵(1693-1748)이 다시 이를 편집하여 『陶山及門諸賢錄』을 만들 때 60여 명을 추가하고, 이어 李守恒(1695-1768)이 朱子의 문인록인 『理學通錄』의 예에 따라 이황의 문집과 언행록 등에서 교훈이 될만한 가르침과 함께 문인들의 輓祭疏 등을 발췌하여 실으면서 10여명을 추가하여 발간하게 되는 사정도³²⁾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김언기의 이름과 행적도 수록되어 비로소 門人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³³⁾ 이는 그가 이황이 사망하고 난 뒤 문인들에 의해 洞主로 추대되어 廬江書院 건립을 주도하고 趙穆이 주도한 『言行總錄』 편찬에 참여했던³⁴⁾ 사실 등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김언기가 陶山으로의 잦은 왕래를 위해 豊山面의 九潭에서 西面의 伊溪로 이사했다가 다시 臥龍面의 佳野로 옮긴 점, 具鳳齡·權春蘭·權好文·金八元 등과 지척에 살며 가까이 지낸 점, 비록 먼 친척이기는 하나 金富弼 등 宗人들도 인근의 烏川에 世居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단순히 왕래한 詩文이나 書簡이 없다는 이유로 100여 명이나 수록된 『계문제자록』에서 제외되었다는

32)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 『韓國의 哲學』26, 1998.

33) 그가 門人錄에 수록되는 것은 李守貞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行狀의 추측부분을 고치려 했으나 그것을 작성한 李光庭이 사망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한 점, 그리고 이광정이 1658년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이름은 李守恒이 『陶山及門諸賢錄』을 재차 간행할 때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34)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後敍 “與月川所撰言行總錄 相爲表裏 而末乃曰 獲忝函丈 久襲春風薰沐 而親炙之云”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몇 세대가 지난 시기라 하더라도 그가 배출한 제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그가 사망한 뒤에도 후손과 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報德壇에 모여 제사를 지낸 데다 한 때 書院까지 건립했던³⁵⁾ 점을 고려할 때, 그가 한동안 이황의 문인으로 간주되지 않은 배경에는 일정한 의도가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면 그 배경에 대해 다음의 두 갈래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그의 이름이 『계문제자록』에 수록되지 못한 것은 그의 향촌에서의 학문적 위상이 문인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실 이황은 자신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학문적 성취도에 따라 다소의 선택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김언기와 함께 청량산에서 공부했던 구봉령이 弱冠에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아갔을 때 博學多識을 이유로 완곡하게 사양했던³⁶⁾ 적이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 역시 이황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학문적 역량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오히려 여기서 그들은 훈척정치의 극한적 모순상황에 대응하는 出處의 자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그가 이황에게서 經世보다는 鄉村教化를 위해 별도의 제자양성을 권유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가 尹元衡 등 戚臣의 전횡이 극에 달하던 명종 16년(1561)부터 佳野에서 處士로 일관된 삶을 살며 독자적으로 제자의 양성에 주력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가 山林에 은거한 채로 독자적 학풍을 형성한 것으로만 비쳐짐으로써 퇴계학과의 관련성에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外孫 柳顯時가 『계문제자록』에 그의 이름이 빠진 것을 두고 老成 石子重·劉子澄과 高弟 蔡伯靜이 朱子の 門列에 수록되지 못한 것에 비교한³⁷⁾

35) 『惟一齋實紀』增補, 龍山報德壇庭碑銘 “安東治臥龍山西麓良坐之原 有報德壇 壇卽故惟一齋金先生之門弟子諸賢爲報恩而設也 始設墓前 爲歲一獻誠之所 自龍溪書院建設之後 廢墓奠而薦祠享久矣 不幸遭邦禁廟宇毀矣”

36) 『陶山及門諸賢錄』권2, 具鳳齡 “弱冠請教於先生 先生辭曰 聞公博學久矣 吾何敢師”

37) 『惟一齋實紀』권2, 附錄 遺事.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그가 이황의 문인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퇴계학과 내부에 대두한 계파간 역학관계에 의해 그의 학맥을 잇는 계파에 대한 견제 내지는 학파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이황이 사망한 이후 퇴계학파는 그들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시각차로 인해 각 계파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언기가 여기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위상이 어떠한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태도 역시 퇴계학파의 분화에 일정한 요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그가 안동부사에게 여강서원 사액을 지원해주도록 청원하는 편지내용 가운데 豐嶽書院(堂)에 位田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그것을 여강서원의 財源을 위해 돌릴 것을 촉구한³⁸⁾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豐嶽書堂은 豐山士林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뒤에 柳成龍이 제향된 屏山書院에 통합되는데,³⁹⁾ 그가 位田의 지급을 先例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성을 제기한 사실은 의도적인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불만을 살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그의 학문이 당시 安東士林의 보편적 경향인 道學의 번성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평가⁴⁰⁾보다는 전반적으로 文學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만 평가되는⁴¹⁾ 등 혼선이 빚어지고,⁴²⁾ 그의 문인들에 의한 독자적 계파형성이

38) 이 내용은 편지의 말미에 追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惟一齋實紀』와 『龍山世稿』에는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廬江志』(권1, 原志 立院事實 上府伯權草澗(文海)書)에는 삭제되어 있다. 또한 廬江書院 賜額을 위해 안동부사의 중재를 부탁하는 「上府伯草澗書」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는 金璣의 5子이자 金誠一의 동생인 金復一의 遺文을 모은 『南嶽逸稿』에도 「廬江書院呈文」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豐嶽書堂의 位田을 여강서원으로 돌릴 것을 청원하는 추신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9) 『廬江志』권1, 原志 追附事實 “先是西厓先生享屏山書院(屏山在河隈上流 卽古豐嶽書堂 而移建屏山)”

40)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後敘 “世稱花山後來道學之盛 惟先生之功居多焉”

41) 『臥龍面誌』권4, 人物 金彦璣 “世稱花山後來文學之盛 公之功爲多”

42)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文學’이란 詩文 등을 일컫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學問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16세기 士林에 의해 性理學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그들은 그것의 단순한 학문적 천착보다는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의 현실적용을 위한 방안모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들이 ‘治人’을 위한 기능적

현실화하지 못한 것도 그에 따른 반작용의 여파가 온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襲行儉이 지적인 바와 같이 그의 대부분의 저술이 燒失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기록이 전혀 없다시피 한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⁴³⁾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것은 퇴계학과 내부의 분열을 원하지 않는 부류에 의한 의도적인 결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퇴계학파가 文廟從祀와 服喪문제를 둘러싸고 율곡학과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내부적 결집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西厓系와 鶴峯系의 양대 계파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안동사림의 정치적 요구가 독자적 계파형성에 제동을 걸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溪門弟子錄』 수록여부의 사정이야 어떠하든 그는 李滉과의 교감 또는 그 영향으로 동질적 世界觀과 함께 出處觀을 확립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經世의 학문보다는 修身的 학문에 盡力하게 되는 것도 현실도피적 출처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훈척정치의 모순된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개혁의 가능성을 타진하던 이황의 그것에 토대를 둔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出仕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훈척정권이 붕괴된 뒤인 宣祖 즉위년(1567) 비로소 司馬試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도 그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가 이

經世家보다는 '修己'를 통한 君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매진하게 되는 것도 그것이 道德과 義理가 무너진 상황을 타개하고 유교적 모범인 三代를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책이자 전제조건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이 성리학적 名分과 義理의 현실적용을 지향하는 士林들은 그것의 현학적 탐구에 머무는 부류와 구분하여 道學者로 자부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道統을 鄭夢周에서 시작하여 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趙光祖·鄭汝昌·李滉으로 연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는 退溪學派의 주된 학문경향은 道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특히 處士型 士林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金彦璣의 제자 대부분이 향촌에서 處士로 머물며 안동지방 처사형 사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이 되는 바라고 하겠다. 西人세력이 仁祖反正 이후 그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成渾과 李珥의 文廟從祀를 통한 道統확립을 시도하고, 이를 퇴계학파가 향촌의 儒生公論을 앞세워 반대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당시 안동사림의 동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43) 『惟一齋實紀』권2, 附錄 遺事後敘.

황이 만년에 선조에게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를 올려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道가 이루어지고 德이 세워지자 義理는 무궁하고 세월은 有限함을 항상 아쉬워했던 사실을 특히 부각하고 있는⁴⁴⁾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선조 4년(1571) 寧海鄕校의 教授에 제수된 것을 계기로 講堂과 樓閣을 고치고 學政을 밝히는⁴⁵⁾ 등 학문장려와 인재배양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정국을 주도한 사림세력이 훈척정치 잔재 청산 등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그는 더 이상의 출사의지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의 교육을 통해 鄕村教化에만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일생을 함께 處士로 살며 제자교육에 주력하던 權好文이 조정에 薦擧된 소식을 듣고 “章仲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며 부정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결국 출사를 포기하도록 한⁴⁶⁾ 것에서 그의 일관된 處士의 삶 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이 김언기는 處士의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名分과 義理에 투철한 儒敎的 道學者로서의 자신의 학문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사실 이황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孝悌忠信은 삶의 본질이자 교육목표이기는 했지만 道를 추구하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이 점은 그가 『中庸』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儒敎的 仁을 道로 간주하면서도 忠恕를 學者의 下功夫處로 이해하고 있는⁴⁷⁾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道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言行을 독실하게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日用의 가운데서 君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나아가 그는 道의 體用의 과정에서는 君

44) 『惟一齋實紀』권1, 書 上府伯權草潤 “拳拳以開導聖學 輔養君德 爲致治之大本焉 進十圖 以端出治之原 疏六條 以陳切時之務... 至於晚歲 道成德立 猶以義理無窮歲月有限 常歎然不足之意 向上之功 進進不已”

45) 『惟一齋實紀』권2, 附錄 遺事.

46)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松巖與先生 道同志合 俱隱於世 而松巖晚除齋郎 先生聞之曰 章仲亦有知之者乎 松巖亦不起”

47) 『龍山世稿』권1, 「惟一齋逸稿」雜著 中庸標題 第十三章 “仁是道 忠恕是學者下功夫處”

子·小人의 구분이 있을 수 없지만, 氣質과 겸하여 논할 경우 구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질의 소멸에 특히 매진했다. 이러한 그의 자세가 배타적인 儒敎的 世界觀과 處世觀을 확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가 唐代 文章家로 명망이 있었지만 儒佛을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한 바가 있는 柳宗元과 같은 인물을 小人으로 규정⁴⁸⁾ 것이나, 廬江書院 건립을 위해 白蓮寺를 헐고 佛像을 강물에 던지도록 한 것 등은 異端에 철저한 그의 학문적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김언기는 스스로의 학문에 정진하는 가운데에도 具鳳齡·權春蘭·權好文·金八元·金富弼 등의 同志들과 매월 초 한번씩 山寺에 모여 道를 講하고 학문을 논하며 교분을 돈독히 유지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제자들과의 講論을 마치면 항상 단정히 앉아 깊이 침잠하며 사색에 잠기곤 하였으며, 흥취가 생기면 지팡이를 짚고 逍遙하고 自適하며 세파에서 초월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士林政治의 확립 이후 영남의 사람들이 다수 조정에 발탁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화려한 足跡과 名聲을 멀리한 채 逸民으로 자처하며 초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평생동안 操身한 가운데 흠이 없는 처신을 했으며, 일을 할 때에도 보편적 규범을 준수할 뿐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등의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⁴⁹⁾ 결국 그는 名利를 멀리한 채 학문에만 정진하며 그것을 체득해 整合性을 갖춘 삶을 살며 제자에게 투영시킨 전형적인 處士型 士林이자 道學者였던 셈이다.⁵⁰⁾ 이에 따라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 가운데 비록 학문적으로 성취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그의 자세에서 觀感의 효과를 얻은 자가 많았다⁵¹⁾고 한다. 이것이 그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안동지방에 處士

48) 『龍山世稿』권1, 「惟一齋逸稿」雜著 中庸標題 第二章 “小人 如胡廣呂溫柳宗元之徒”

49)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先生敦實紉華不近名 操身潔行漸見知 從事乎日用常行之則 而未嘗爲驚世震人之行”

50) 당시 이 같이 官界진출을 포기하고 학문과 강학에 주력한 안동선비의 전형적인 인물로는 川前에 傳巖書堂을 연 金璣를 비롯해 臥龍에 佳野書堂을 세운 金彦璣, 西面에 伊溪書堂을 건립한 權大器 등이 꼽히고 있다.(吳壽京, 「안동 선비의 문화의식과 향토문화 창달」 『安東의 선비文化』, 아세아문화사, 1997)

51)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型 士林이 형성되어 향촌의 教化를 주도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안동지방 사람들 사이에 명분과 의리에 투철한 道德的 삶을 지향하는 학문적 경향이 지배하게 되는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金彦璣는 志行과 높은 德을 구하는 학문적 자세로 제자의 교육에만 전념하다 선조 21년(1588) 3월 15일 그가 평소 독서하고 제자를 가르치던 書齋에서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슬하에는 英陽 南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得璣과 2女, 永川 李氏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得璠·得儀와 3女가 있었다. 그가 타계한 뒤 그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하는 제자들이 매년 그의 幽宅에 모여 후손들과 함께 會奠禮를 행하였고, 선조 39년(1606)에는 문인 權泰一의 제안으로 報德壇을 조성해 規約을 만들고 錢穀을 거두어 思慕의 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⁵²⁾

3. 惟一齋 門人の 動向과 역할

金彦璣는 42세 때인 명종 16년(1561)부터 자신의 집에 書堂을 열어 본격적으로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書室 몇 칸을 내어 '惟一'이라 편액을 걸고 書齋 겸 講堂으로 사용하는 한편, 生徒의 숙소로 이용하는 곳을 '觀善'이라 했다. 그리고 서당의 이름을 '光風軒'이라 하고, 그 앞에 사방 50步 정도의 못을 조성해 '活水'라 이름하여 逍遙의 장소로 삼았다.

그의 제자교육 방식은 다소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매일 제자들과 經傳을 講說하면서도 스스로 복을 두드려 학문에 대한 의지를 다지도록 하고 자질에 따라 서로 이끌고 돕도록 했다. 이러한 자율적이고도 상호 보조적 교육방식은 생도들의 학문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고, 그 소문을 듣고 북 상자와 경전을 들고 찾아오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⁵³⁾고 한다. 그리하여 서당에는 항상 생도들로 붐볐고

52) 『惟一齋實紀』권2, 附錄 同門通論文.

53)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以鼓發其志意 使之自得 而隨材誘掖 至啓手之年 鼓篋

이로 인해 그는 生業을 돌볼 겨를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다. 더구나 그가 생도들에게서 講學의 비용조차 받지 않음으로써 서당운영의 경제적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妻家에서 약간의 田土를 내어 講學의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고,⁵⁴⁾ 생도들이 교대로 땀감을 마련해 불을 땀다는 소식을 듣고 府使 李陽元이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官에 바치도록 되어있는 인근의 柴炭을 서당으로 돌리도록 조치하기도 했다.⁵⁵⁾ 이러한 안동부의 지원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의 書堂이 私設인 점에 비추어 이는 그것이 향촌교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언기가 일생동안 배출한 제자의 수는 「門人錄」에 의하면 모두 189명으로 집계된다.(〈표〉 참조) 여기서 우선 그들의 출생년도를 보면 寧海鄉校의 教授를 역임하고 壬辰倭亂 당시 義兵將으로 활약하기도 한 白仁國이 1530년생으로 최연장자이며, 佳野에 거주하던 李誠郁·李時郁이 최연소인 1577년생으로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거의 80%에 육박하는 146명이 1550년 이후 출생한 인물들로, 그들은 사실상 李滉에게서 직접 배우기는 어려운 나이에 해당한다. 실제 그의 문인들 중에 南致利를 비롯해 白見龍·權春桂·鄭士誠·金圻·孫興禮 등은 『陶山及門諸賢錄』에도 이름이 올라있으나, 모두가 1540년대 출생한 인물들로 1550년대 이후 출생자는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황과 김언기의 제자교육 방식이 맥이 닿아 있으면서도 교육수준에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는 요인이 되었다.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식에 대해 김언기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스스로의 格物致知로 誠正에 이르도록 했으며, 스스로의 修身으로 齊家·治國·平天下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灑掃應對로 窮理盡

執經者 日踵于門 蓋以是樂而終其身 其所成就者甚衆”

54) 『惟一齋實紀』권2, 附錄 聞見錄 “金彥穢篤志力學 不事生業 講論之客 逐日盈堂 而以供鷄黍 或緣此而不能數會 則實爲缺事 茲出若干田土 爲某講學之資 其體此意 益敦學業幸甚 婦翁參奉李仁弼”

55) 『惟一齋實紀』권2, 附錄 聞見錄 “惟一齋先生 日處書室 課授生徒同門七十餘人 遞執樵爨之役 府使李陽元聞之 令書齋傍近 柴炭之當入官者 屬之書齋 以代樵勞者三十餘年”

性에 이르도록 하여 따르는 것이 순서가 있도록 함으로써 그 資稟에 기인하지 않고는 성취하는 것이 없도록 했습니다. 행할 때는 動·靜에 법도가 있었고, 內·외가 일치하여 항상 上帝가 강림하고 父師가 앞에 계시는 것처럼 威儀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급하거나 넘어서더라도 일찍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물을 접할 때는 분별과 같이 따듯했으며 사람을 감화할 때는 때맞춰 내리는 비처럼 촉촉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비록 앞에서 만가지 변화가 교차해도 좃붙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저울추처럼 輕重을 잃지 않았습니다. 愛君憂國의 마음은 비록 한가하게 거처할 때도 하루라도 가슴속에서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⁵⁶⁾

며 학문의 목표를 忠君愛國에 두면서 스스로 修身의 모범을 보인 가운데 감화를 통해 資稟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의 제자교육 방식은

선생은 課程을 엄격하게 세우고 가르칠 때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했다. 그 材·稟의 高下에 따라 독려하고 器·識의 大小에 따라 힘쓰게 했다. 句讀의 바른 해석을 도모하지 않고 나누어 분석해 精微함을 쌓도록 했으며, 詞華의 고상함을 도모하지 않고 義利의 구분을 반복하게 했다. 그 가르침은 孝悌忠信을 근본으로 했고 事親·事君의 道를 알게 했다. 趨向하고 志向한 것을 바르게 하여 成己·成物의 공을 이루도록 도왔다. 자상한 가르침으로 회초리를 대신해 정성을 다했으며, 먼저 하천을 알고 뒤에 바다를 알도록 순서에 따라 계책을 세워 나아가게 했다. 課誦하는 틈틈이 諸生을 이끌고 堂에 올라 聖賢의 아름다움을 講究하고 古今의 得失을 토론하는 것으로 立身의 자질로 삼도록 했다.⁵⁷⁾

고 평가되듯이 忠君事親을 목표로 하면서도 經書와 史書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사리를 분별토록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立身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비중이 두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황과 김언기는 다같이 孝悌忠信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후덕한 인품을 바탕으로 제자를 감화시키는 교육방법을 선택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교육내용에 있어 이황이 인격완성을 위한 修身에 비중을 두고

56) 『惟一齋實紀』권1, 書 上府伯權草濶.

57) 『惟一齋實紀』권2, 附錄 遺事後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김언기는 그 토대가 되는 立身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차이는 김언기의 제자구성이 주로 이황의 再傳弟子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시각차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황의 교육이 經世家 또는 教育者의 양성이라는 학문적 완성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제자양성이 이황과의 일정한 교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여기서도 찾아지는 것으로, 그가 가르치던 南致利·鄭士誠 등을 陶山으로 보내 학업을 마무리하도록 한⁵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김언기의 문인들의 거주지를 보면 安東府內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그가 教授로 한 때 재직했던 寧海를 비롯해 禮安·豊山·一直·吉安·眞寶·義城·義興·青松·榮川·豊基·乃城·英陽·醴泉 등으로 나타나 당시의 안동문화권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학맥이 폭넓게 분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동지방 퇴계학파의 학풍을 주도할 결집력과 잠재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들 가운데 金士亨·權曄·朴毅長·申之悌·權泰一 등 文武科에 급제하여 官界에 진출해 立身揚名한 인물도 있지만, 그들을 포함한 문인의 대부분은 南致利(魯林書院)를 비롯해 白見龍(雲山書院), 鄭士誠(鶴巖社), 權曄(道溪祠), 朴毅長(九峯書院), 申之悌(藏待書院), 權杠(雲溪里社), 南隆達(鳳巖祠), 南太華(南太別(公山祠)) 등 鄉村士林의 公論에 의해 각종 書院과 祠宇에 제향될 정도로 道學的 학문 풍토 조성에 기여하거나 操行·文章 등으로 명성을 얻으며 향촌의 教化에 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들이 16·17세기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던 處士型 士林의 주축을 이루며 향촌의 公論을 형성하는 주축이 되었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⁵⁹⁾

58)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南貢趾致利 鄭芝軒士誠諸公 先生使之卒業陶山 以學問著”

59) 이 시기 安東士林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하여는 李鍾虎 外, 『安東의 선비文化』, 아세아문화사, 1997 참조.

당시 안동지방 퇴계학파의 이러한 은둔적 경향은 일차적으로는 光海君代 大北政權의 討逆論을 앞세운 배타적 정국운영에 이어 仁祖反正을 계기로 정국을 주도한 西人政權의 南人을 배제한 사실상의 독점지배 체제에 따른 소산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리학의 철학적 궁구를 통해 도덕성과 명분을 겸비한 君子로서의 자기 천착에 매진하는 한편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견지하며 '難進易退'의 出處義理를 확립했던 李滉에게서 感化를 받은 金彥璣 등 처사형 문인들의 학문경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학파 내부에서 그를 정점으로 한 계파의 형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가 사망한 이후 거의 실체조차 사라지다시피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處士型 學風이 지닌 현실대응 자세에 대한 正體性和 結束力의 결여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학파 내부의 系派間 力學關係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退溪學派는 李滉이 사망한 직후부터 禮安士林과 安東士林을 중심으로 分化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정점에는 이황의 핵심제자로 부상하게 되는 趙穆과 柳成龍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그들의 학문경향을 비롯해 현실인식과 대응자세가 주된 작용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이황은 性理學的 理氣心性論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세계관과 출처관을 확립했다. 그리하여 그는 理·氣를 善·惡의 가치분별적 관계로 구분하는 朱子性理學을 골격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극단적인 대립적 관계로(理氣分對論) 해석하는 曹植과는 달리, 상호 따르고 올라탄 관계로(理氣隨乘論) 파악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君子·小人의 混在를 인정하면서도 소인이 군자를 따라 감응하고 군자가 소인을 제어함으로써 궁극에 군자지배의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그의 세계관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趙光祖 등이 君子·小人 분별의 이분법적 자세로 소인의 척결을 통한 군자지배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至治主義 운동을 전개하다 己卯士禍로 개혁이 좌절된 경험을 감안해 나온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善·惡을 겸한 氣의 작용성만 인정한 가운데 가치분별을 배제하고 화합을 지향하는 李珣의 理氣妙合論의 구조와도 분명 다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황의 수승론은 이분법적인 배타적 자세

가 갖는 극한성과 함께 화합을 내세워 모순된 현실과 타협하는 태도가 지닌 이중성을 동시에 경계하면서 사고와 행동체계의 整合性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셈이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退溪學이 南冥學이나 栗谷學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며 차별화되는 철학적 근거가 되었다.⁶⁰⁾

그러나 南冥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退溪學도 엄밀한 의미에서 勳戚政治의 극한적인 모순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시대적 국한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훈척정권이 무너지고 士林政治가 확립되는 정치적 변화상황에서 그것의 적용문제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학파마다 내부에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며 분화조짐을 보이게 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일차적인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在野에 머물면서도 현실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조목과 일찍부터 官界에 진출하여 정치일선에서 활동했던 유성룡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조목은 향촌에서 성리학의 탐구에 매진하면서도 心學에 깊이 침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心經』을 읽기를 좋아해 일생동안 勤苦·受用의 경지로 삼았고 經傳에서 유래한 諸儒의 說을 神明과 같이 믿고 嚴師와 같이 공경하며 晝誦夜讀으로 心을 이해하는데 힘썼다⁶¹⁾고 할 정도로 心의 근원적 이해에 몰두했다. 이에 반해 유성룡은 心은 우주의 근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出入이 없는 것이라⁶²⁾ 비판하는 한편, 聖賢의 학문은 思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니면 口耳之學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思'字가 田과 心으로 구성되었듯이 농부가 농토를 경작하는 것처럼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이라⁶³⁾ 규정하며 학문의 방향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60) 薛錫圭, 「17세기 理氣心性論 발달의 역사적 의미」, 『國史館論叢』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61) 『月川集』(趙穆)附錄, 行狀 “好讀心經 爲一生勤苦受用之地 其於經傳有來諸儒之說 信之如神明 敬之如嚴師 晝誦夜讀 心解力行”

62) 『西厓集』(柳成龍)권15, 雜著 心無出入.

63) 『西厓集』권15, 雜著 學以思爲主 “聖賢之學 專以思爲主 非思則口耳之學 雖多奚爲 今有人 口誦五車書 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 不思故耳 蓋思字 從田從心 田者耕治之義 人能耕治心田 如農夫之去稂莠而養嘉穀 則心由是正 意由是誠 惡念退聽而天理自明矣”

이러한 그들의 학문방법에 대한 차이는 그들이 이황의 隨乘論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도 조목이 성리학의 근원적 이해를 통한 原論의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유성룡은 그것의 활용을 염두에 둔 經世論의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는 결국 그들이 人品이나 出處觀에 있어 각각 원칙과 현실에 치중하는 차별적 면모를 보여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목이 '守志林泉'·'篤志不懈'⁶⁴⁾라 하여 평생동안 지조를 굳건히 지키며 곧은 풍모를 지켰다고 평가된 것에 비해, 유성룡이 온후하면서도 의연하고 엄하면서도 자상한 면을 보여준 것으로⁶⁵⁾ 평가되는 것도 그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들의 이 같은 인품상 차이는 元儒 許衡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곧 조목은 그가 聰明博學하고 躬行實踐함이 있었으나 元에 벼슬하며 시류와 타협했던 점을 개탄하며⁶⁶⁾ 상대적으로 확고한 가치분별적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유성룡은 허형이 元에서 벼슬을 버리지 않은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옹호하는 한편, 周 武王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首陽山에서 餓死한 伯夷의 행위가 반드시 仁이라고 볼 수 없다⁶⁷⁾며 경직된 처세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退溪集』의 편찬방향을 둘러싸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다,⁶⁸⁾ 급기야 조목이 유성룡의 임진왜란 대응태도를 두고 극렬하게 비판함으로써⁶⁹⁾ 결국 大北勢力에 의해 '主和誤國'으로 몰려 실각하도록 하는 극한적 대립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도 그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조목이 사망한 뒤 광해군대 分對論者가 주축이 된 大北政權의 지원으로 陶山書院에 從享되는⁷⁰⁾ 것에서 보

64) 『月川集』年譜, 癸丑(光海君 5: 1613).

65) 『西厓集』年譜 권3, 行狀 “蒼石李垓狀末總論曰... 溫而有毅然 難犯之象 厲而有薰然 可親之意 對之者非心邪念 自然消沮 其學之所得 未嘗輕以語人”

66) 『月川集』附錄, 行狀 “論許魯齋之爲人曰 平仲聰明 博學躬行 實踐發明 斯道甚有力 只恨仕於穢朝事耳”

67) 『西厓集』권13, 雜著 許魯齋論予所否者.

68)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 『北岳史論』3, 國民대사학과, 1993.

69) 『月川集』附錄, 神道碑銘 “西厓在領臺主和議 乃抵書曰 相國平生 讀聖賢書 所得只此 講和誤國四字耶”

70) 『光海君日記』권84, 6년 11월 癸酉 “趙穆滉之高弟也 常以柳成龍和議爲非 又與李山

듯이 月川系가 그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한 면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仁祖反正 이후 妙合論者의 西人政權에 의해 월천계가 정치보복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성룡의 제자 鄭經世가 중용되는 예에서 보듯 西厓系가 그들과 정치적 공존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성룡의 손자 柳元之가 인조반정을 ‘撥亂反正’으로 규정해 宗社가 안정되고 義理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⁷¹⁾고 평가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선조 40년(1607) 柳成龍이 사망하자 大北계열 史官은 그의 卒記 가운데에서

유성룡은 趙穆 金誠一과 함께 退溪의 문하에서 배웠다. 김성일은 剛毅篤實하여 품모가 엄숙하고 단정하였으며, 너무 곧아서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大節이 드높다는 점에 사람들의 異議가 없었는데 癸巳年(1593, 宣祖 26) 나라 일에 진력하다가 軍中에서 죽었다. 조목은 종신토록 은거하면서 학문에 독실하고 自修하였으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게 되자 慷慨해 마지않았는데 지난해 죽었다. 조목은 일찍이 김성일을 낮게 생각하고 유성룡을 못하게 여겼는데, 만년에는 유성룡이 하는 일에 매우 분개하여 絶交하는 편지를 쓰기까지 했다. 퇴계 문하에서는 이 세 사람을 領袖로 삼는다.⁷²⁾

고 하여 조목을 비롯해 유성룡·김성일을 퇴계학파의 영수로 지목했다. 물론 이는 표면상 드러나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행보에 따른 것으로 퇴계학파 전반의 동향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는 조목과 유성룡이 대립하는 가운데 金誠一이 그들과는 별도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김성일의 성격과 품성은 剛直하면서도 어질었던 것으로⁷³⁾ 평가되듯이

海舊交相善 故嶺南人盛言穆與成龍有隙 而非其實矣 至是 禮安人李江等 唱言穆乃仁弘同志 從祀洵祠 故臺諫有此啓 自此安東禮安之間 多附會仁弘 得科第爲名官者 識者爲穆恥之”

71) 『拙齋集』(柳元之)권6, 書 答友人別紙 “但光海末年 幽廢母后 殺同氣 綱常掃地 而仁祖大王 撥亂反正 宗社以安 倫復敘斯 乃天下之義主固 無不仕之義”

72) 『宣祖實錄』권211, 40년 5월 乙亥.

73) 『廬江志』권1, 原志 追附事實 “柏巖撰常享祝文曰 性稟剛德 學傳先師 言行動天 可行蠻貊”

剛毅 일변도의 조목과 宥和의 경향의 유성룡 사이에서 조정역을 담당할 수 있는 복합적 면모를 갖고 있었다. 실제 그는 『退溪集』 편찬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목이 성향상 그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조목에게 직접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處事에 앞뒤가 막혔다⁷⁴⁾고 지적하는 등 處身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그는 유성룡과 서로 師表로 삼을 정도로⁷⁵⁾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士林勢力이 學派의 세계관을 토대로 분열해 가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퇴계학파의 독자적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그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선조대 退溪學派와 南冥學派는 훈척정치의 잔재청산에 다같이 적극성을 보이며 東人으로 좌정하여 그에 소극적인 栗谷學派의 西人에 공동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東人은 다시 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남명학파가 理氣分對論에 근거한 君子小人論을 앞세워 李珥의 理氣妙合論을 토대로 保合論을 제시하는 西人을 小人으로 규정해 적결하려는데 대해, 柳成龍이 理氣隨乘論에 입각해 상호 君子의 발탁을 골격으로 하는 調劑蕩平論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분열의 조짐을 보여 주게 되었다.⁷⁶⁾ 이러한 상황에서 강고한 자세로 과거청산에 적극성을 보이던 김성일이 예상과는 달리 '參用彼此'를 내세워 유성룡을 지지하고 나섰던⁷⁷⁾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현실인식과 대응자세의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파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관계가 뒤에 안동사람이 그들을 함께 廬江書院에 배향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74) 『鶴峰集』(金誠一)補遺, 書 答趙士敬 “聞左右於人言 似缺虛受 居官處事 亦或固滯云 未知緣何有此流言耶”

75) 『敬堂集』(張興孝)권1, 錄 鶴峯西厓兩先生言行錄 “柳先生稱金先生曰 求爲執鞭 不可得也 金先生稱柳先生曰 吾之師表 互相推讓云”

76) 薛錫圭, 「16세기 嶺南學派의 政治哲學 형성과 朋黨論」 『韓國의 哲學』27,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9.

77) 『宣祖修正實錄』권22, 21년 8월 “時朝廷 已有南北之說 以偏斥西人 爲北 參用彼此 爲南 誠一 剛介入 或以爲當主偏斥之論 及入朝則曰 異己者未必皆小人 同己者未必皆君子 無論彼此 任賢而捨不肖 可也”

여강서원은 선조 6년(1573) 安東府에서 30리 떨어진 廬阜山 五老峯 기슭에 있던 白蓮寺가 李滉이 어릴 적 讀書했던 곳이라는 이유로 유성룡·김성일·김언기·구봉령 등의 제안으로 안동사림의 공론을 거쳐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金彦璣를 洞主로 추대한 것은 조정에 진출해 있는 유성룡·김성일과는 달리, 그가 향촌에 거주하며 안동사림의 공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 서원의 初代 院長이 되어 공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安東府使 權文海에게

무릇 안으로 國學(成均館)이 있고 밖으로 州·府·郡·縣의 鄉校가 있어 規模가 광대하고 制度가 상세히 갖추어졌다고 실로 書院이라고 할 일이 없겠습니까. 옛것을 좋아하는 君子가 여기에서 홀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데 힘을 쏟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學校는 朝市와 城郭의 안에 위치해 있어 수레와 발굽소리가 폭주하고 남녀의 떠드는 소리가 혼잡하여 心神을 피로하게 하고 耳目을 분주하게 하니, 앞으로는 學士의 拘碍를 받음이 있으면서 뒤로는 異物의 번잡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가 기이함과 덕을 품은 선비가 世俗의 재주를 다투는 모퉁이를 싫어하고 한가하게 비어있고 연못같이 적적한 곳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一方의 학문은 바로 一國의 公共의 학문으로 吾道의 의지하는 바와 風化가 관련된 바는 여기에서 막중한 것입니다. 閣下께서 마땅히 먼저 힘쓸 바가 이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함하게서 그 말을 채택하여 바로잡아 베푸는 일이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方伯을 통해 궁궐에 전해져 先朝의 故事에 따라 書籍과 扁額을 내려주고 토지와 노비를 내려 모든 증식의 규정과 먼 날의 계획이 빠짐이 없도록 해 준다면 가르침이 임금에게서 근원하고 선비가 와서 즐겨 노닐게 되는 일이 천만년이 지나도 록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78)

며 鄉校의 교육적 기능상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서원의 경제적 기반확보를 위해 조정에서 賜額을 내려주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나아가 그는 同門들과 제반 모범을 강구하고 陶山書院의 院規를 참고하여 規約을 정하는⁷⁹⁾ 등 안동사림의 학문의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

78) 『惟一齋實紀』권1, 書 上府伯權草澗(文海).

79) 『惟一齋實紀』권2, 附錄 行狀 “先生與同門諸先生 講求矩矱 累至陶山 與本院參正規約”

루어 여강서원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건립된 도산서원과 역할분담을 통한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선조 9년(1576) 여강서원에 이황의 位版을 봉안할 때 趙穆이 常享祝文을 작성한⁸⁰⁾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도산서원과 여강서원을 중심으로 예안과 안동사람이 퇴계학파의 동질성을 확보한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으나, 광해군 6년(1614) 안동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안사람이 大北정권의 지원을 받아 조목을 도산서원에 從享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말았다.⁸¹⁾ 그것은 鄭經世가 광해군 12년(1620) 廬江書院에 柳成龍·金誠一을 배향하는 告由文에서

先生の 학문은 두 길로 나아가 밝아지고 순수해지게 되었으니 '眞知實踐'과 '道存德性'이 그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넉넉하게 베푸신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자 道를 구하기 위해 책을 끼고 오는 선비들이 구름과 같았습니다. 整然하면서도 조리있게 이끌어 주시며 단계와 등급을 가리켜 보이시고, 자질에 따라 돈독하도록 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있었고 수립하는 것이 있었으며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생의 가르침에 깨우침을 얻은 二賢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진실하고 정확한 것을 주고받으며 同列에서 서로 앞서도록 밀어주는 사이로 나라의 兩大支柱이자 선비의 모범이었으니 作成의 번성함이 여기에서 지극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西厓先生 柳公과 鶴峯先生 金公을 配食하나이다.⁸²⁾

며 이황의 학문이 그들에 의해 두 갈래로 구현되었다고 규정한 것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황의 隨乘論的 세계관과 삶의 철학이 시대를 관통하는 합리적 현실대응 자세확립과 함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덕적 인품함양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이자, 그것들을 각각 계승하여 부각시킨 유성룡과 김성일이 이황의 嫡傳이라는 사실을 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80) 『廬江志』권1, 原志 立院事實.

81) 趙穆의 陶山書院 配享顛末에 대하여는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17세기초 嶺南士族 動向의 一端-」,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82) 『廬江志』권1, 原志 追附事實 元位告由文.

나아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趙穆을 적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조목의 학문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의 心學에 근거한 원리적이고 배타적인 處世觀이 이황의 세계관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북정권의 討逆論과 廢母論을 앞세운 파행적 정국운영에 악용 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배향이 사림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정권의 지원을 업고 이루어지게 되는 사정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사람이 유성룡과 김성일을 이황의 嫡傳으로 규정한 이면에는 대북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그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강서원 습후과정에서 配享·從享 문제와 두 사람의 位次問題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갈등 없이 유성룡을 東配位, 김성일을 西配位에 각각 배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⁸³⁾

그러나 예안사람과 안동사람의 배향을 둘러싼 그 같은 분화양상에 향촌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시 말해 그들의 대립에 독자적 정치 철학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계파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退溪學의 현실적용보다는 심화발전에 관심을 갖는 士林들의 반발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金彦璣 등 처사들의 學風을 계승하며 退溪學派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던 處士型 士林에게서 두드러지는 면이 있었다. 그들이 南致利를 廬江書院에 追享하려는 것도 퇴계학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별다른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그들의 결속을 통해 여타 계파와 대등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강서원 건립의 주역이자 초대 원장이 金彦璣였다는 점과 남치리가 그의 핵심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분명 김언기의 문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83) 『廬江志』권1, 原志 追祔事實.

南致利(1543-1580)는 16세 되던 해인 명종 13년(1558) 처음 金彦璣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21세 때 스승의 권유로 李滉에게 나아가 배웠다.⁸⁴⁾ 그는 鄭述·李德弘·金長生 등과 함께 遺逸로 조정에 천거된 적이 있으나⁸⁵⁾ 나아가지 않고 평생 향촌에 은거하며 퇴계학의 심화에만 기여했다. 그리하여 그는 비록 38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기는 했지만, 퇴계학파의 顏子로 평가될⁸⁶⁾ 정도로 향촌사림의 추앙을 받았다.

남치리의 여강서원 추향논의가 처음 제기되는 것은 유성룡·김성일이 배향된 지 3년 뒤인 광해군 15년(1623)이었다. 그들은 각지에 通文을 보내 남치리가 李滉의 旨訣을 직접 계승하고 造詣가 精深하여 士林의 推服을 받을 뿐만 아니라 追享이 公論이라⁸⁷⁾ 주장했다. 그렇지만 실제 그것은 당시에 사림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던 것 같으며, 그 시도는 일단 잠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⁸⁾ 그러다가 인조 8년(1630)에 이어 12년(1634)에 다시 이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여기에는 특히 김언기의 아들 金得珣이 南致利와 더불어 權宇의 추향을 위한 공론의 확산을 위해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남치리를 '同門丈'으로, 권우를 '世契友'로 각각 표현하며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이 서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실한 學行으로 사림의 모범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추향의 공론화가 당연하다⁸⁹⁾고 주장했다. 이에 자극받아 金點 등이 나서서 기필코 추향을 실현하려 시도했으나 金誠一의 손자 金是樞 등이 그들을 權好文이 제향된 靑城書院에 肅享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상호 감정의 골만 깊게 한 채⁹⁰⁾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84) 『賁趾集』(南致利)권2, 年譜.

85) 『宣祖實錄』권12, 11년 3월 甲子.

86) 『賁趾集』附錄(下), 言行雜錄 “而況一時輩流 推爲顏子 自謂莫及者 傳誦萬口”

87) 『賁趾集』권2, 年譜 天啓三年(1623) “士林通文以爲 先生早遊退門 親承旨訣 造詣精深 函丈之所獎許 同門之所推服... 今此崇奉之舉 實是士林公共之論云云”

88)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17세기 초반의 廟享論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1998.

89) 『葛峯集』권4, 書 答校中士林書.

90) 『溪巖日錄』(金垺)권6, 甲戌年(1634) 八月 二十一日 “以南處士廟食 金點輩必欲從享 廬江 金子瞻輩欲合享靑城 大致相爭 仍成怨敵”

남치리의 추향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는 것은 효종 원년(1650)에 들어와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그 시도가 공교롭게도 柳櫻이 疏頭가 된 嶺南儒林 9백여 명의 牛栗 文廟從祀 反對上疏를 위한 設疏日에 맞춰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⁹¹⁾ 이 종사반대 운동은 柳櫻이 김성일의 문인인 점에 비추어 鶴峯系가 주도한 가운데 西厓系의 동조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운동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간단히 학파간 이념논쟁으로 치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牛溪 成渾과 栗谷 李珥는 서인세력의 宗匠으로 간주되는 인물로 그들의 정치적 명분도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인조반정 이후 서인세력이 그들을 文廟에 종사하려는 것은 그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서인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⁹²⁾

영남사람이 특히 李珥의 理氣妙合論이 성리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邪論의 혐의가 있다며 문묘종사를 반대한 이면에는 그들의 정치적 불만이 개재해 있었다. 곧 서인정권은 인조반정 이후 李珥의 妙合論에 근거하여 保畝를 내세우며 南人과의 공존을 표방하면서도 남인을 배제한 채 淸要職을 장악하며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굳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인의 주축을 이룬 퇴계학파가 李珥의 철학을 비판한 이면에는 서인정권 명분의 정치적 이중성과 허구성을 폭로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⁹³⁾ 이는 결과적으로 서인정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에 의한 정치보복의 반작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에서 정치적 입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영남사람의 입장로서는 그 같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촌의 公論結集이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치리의 여강서원 추향문제가 제기된 사실은 이를 담보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들은 영남사람

91) 『百拙庵集』(柳櫻)附錄, 行狀 “當多士設疏之日 有鄉中浮議 私自角立 闕然攻擊 將不可鎮定(時以賁趾南公 從享退陶廟之議 一道士論 至於角立相訾)”

92)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朝鮮史研究』3, 1994.

93) 薛錫圭, 「17세기 退溪學派의 朋黨認識과 公論形成」, 『退溪學』1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00.

의 공론이 聯名者의 수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들의 참여여부가 종사반대 공론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역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남치리의 추향을 주도한 인물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추향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單子를 보내온 자를 포함해 99명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비공개 圈點 대신 공개적으로 ‘宜從祀’ ‘不宜從祀’를 特書해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추향에 분명한 반대의를 표명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추향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동사림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성일의 손자 金是樞와 유성룡의 손자이자 김시추의 사위인 柳元之, 외손 李弘祚 등 鶴峯·西厓系の 핵심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들은 여강서원에 보낸 통문에서

賁趾는 老先生의 高弟이지만 당초 合享할 때 이 논의에 함께 거론되지 않았 습니다. 이는 諸賢들이 보기에 흠족하지 않은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江院의 중요한 사안이라 가벼이 논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己巳年間(인조 7, 1629) 愚伏 鄭先生이 京師에 계시면서 金尼山(慶祖)과 함께 합향할 때의 일을 논의하고 이에 다시 지시하시기를 “이후 江院廟門은 다시 열 수 없다. 제군들은 오직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賁趾가 이룬 것이 깊고 알은지 從享에 합당한지 여부는 실로 今世의 인사들이 능히 臆斷할 바가 아닙니다. 老先生의 廟門은 가벼이 열 수 없다는데 이르러서는 어리석고 지체로움을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⁹⁴⁾

며 남치리 추향의 합당여부보다는 중대한 사안을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점과 더 이상 추향을 말라는 鄭經世의 지시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 서 그들은 공론화 과정의 파행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곧 공론화가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압에 의한 혐의가 있는 데다, 會中 인물들 가운데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94) 『廬江志』권2, 續志, 本府士林通本院文(金風雷軒·李睡隱·柳拙齋 諸公).

는 것이다. 더욱이 99명 중 공개적으로 반대한 4명 외에 呈單한 자 14명, 병을 청하고 물러난 자 2명, 서명을 거부한 자 19명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39명이 실질적으로 반대한 셈으로, 비록 찬성한 자가 다수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公論이라 간주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그 같은 반대이유는 표면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배경은 道內에 보낸 통문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一鄉의 善士라면 一鄉에서 존경받고 一國의 善士라면 一國의 존경을 받는 법이라 전제한 뒤,

弊鄉에는 옛날 南處士가 있었으니 號는 賁趾입니다. 일찍이 老先生의 문하에 올랐고 志行을 아름답게 보여 一時에 칭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일찍부터 세상에서 성취함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名稱이 여러 고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事業이 보고들을 정도로 드러나지 못했으니 소위 一鄉에서만 존중하는 바입니다... 오! 江院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까. 一國이 함께 존중하는 곳이고 萬代가 함께 우러러보는 곳이니 한 쪽에 치우친 見識으로 감히 一鄉의 善士를 가버이 의논하고 감히 舍祀에 올린다는 것이 不可하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⁹⁵⁾

며 그 이유를 밝혔다. 요컨대 남치리가 顯達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草野에 묻혀있던 處士이기 때문에 여강서원의 위상에 비추어 추향이 不可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추향을 주도하는 부류가 중앙에 정치적 배경을 갖지 못한 처사형 사립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자, 그들의 시도가 관료지향형 사립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김언기의 학풍을 계승하는 안동지방 처사형 사립들은 퇴계학파의 계파간 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자적 계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전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김언기의 제자이자 이황의 제자인 남치리의 여강서원 추향을 통해 그 상징성을 보장받는 한편 그들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시도는 안동사립 일각의 긍정적 평가에도⁹⁶⁾ 불구하고 인

95) 『廬江志』권2, 續志 本府士林通道內文.

96) 『二愚堂集』(權奕)권3, 書 答震峯兄 “賁趾先生江院附享事 公論已定 而似聞厓鶴兩賢子孫及若干人 乃有異議 至於通文列邑 誠不可知也”

조반정 이후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月川系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던 서애계와 학봉계의 집중 견제로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비록 효종 4년(1653) 별도로 남치리를 제향한 魯林書院을 건립하고 14군의 사림 3백여 명이 모여⁹⁷⁾ 그 세력을 과시하지만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었다. 이후 서인세력과의 從祀論爭 및 服喪論爭에서 嶺南南人의 공론을 주도하던 학봉계서애계의 兩大 系派의 위상강화에 따라 그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언기의 학맥을 계승한 문인이 189명에 이르는 방대한 수에도 불구하고 퇴계학과 내부에서 그의 학풍에 토대를 둔 독자적 계파가 형성되지 못한 사정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상 惟一齋 金彥璣의 學問의 성격과 學脈의 계승양상을 16·17세기 退溪學派의 동향과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金彥璣의 학문은 기본적으로는 家學에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는 退溪學과 맥이 닿아 있었다. 특히 李滉은 높은 절벽을 안으로 감싸고 있는 淸涼山의 모습을 통해 外柔內剛의 인품을 함양함과 동시에, 깊은 성리학의 사유를 통해 善惡의 이분법적 가치분별에 투철한 理氣分對論의 朱子性理學 대신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독자적인 理氣隨乘論의 철학체계를 확립했다. 그의 강직하면서도 온후한 복합적 성품과 ‘難進易退’의 出處觀은 그 같은 배경에서 整合性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언기가 9년여 동안 청량산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陶山과 가까운 臥龍의 佳野에 정착하게 되는 것도 이황의 그러한 인품과 출처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가 모순된 현실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經世의 포부를 버리지

97) 『賁趾集』권2, 年譜 崇禎 二十六年(1653) “十月奉安位版于新祠 院號曰 魯林書院 廟號曰 景賢祠(道內十四邑士林會者三百餘人)”

않고 학문에 매진하며 시대적 모순의 극복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勳戚政權에 의해 초래된 극단적 모순의 상황과 훈척정치 잔재청산을 둘러싼 士林세력의 갈등양상은 그로 하여금 經世家 대신 處士의 삶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科擧를 포기하는 대신 君子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修身的 학문탐구에 힘을 쏟는 한편, 書堂을 열어 제자의 양성에 주력했다. 이러한 그의 처사적 삶은 李滉과의 교감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것이 그가 향촌에 머물면서도 名分과 義理에 투철한 道學者的 면모를 갖춘 處士型 士林의 전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나아가 그의 제자양성은 퇴계학의 심화와 함께 저변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는 퇴계학파가 향촌의 公論을 배경으로 서인정권의 전횡을 견제하는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의 존재를 과시하는 발판이 되었다.

김언기의 인품에 감화를 받고 학풍을 계승한 제자는 모두 189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안동문화권에 지역적 기반을 두면서 안동 처사형 사람의 실질적인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퇴계학파가 정치적 입장차이에 따라 月川系·西厓系·鶴峯系 등으로 분화조짐을 보이자 독자적 계파형성을 통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한 그들의 시도는 南致利를 廬江書院에 追享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남치리가 이황의 문인이기는 하나 김언기의 핵심제자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점과 김언기가 여강서원 초대 원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치리의 여강서원 추향은 그의 학풍을 계승하는 계파의 결집력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남치리 추향을 통한 독자적 계파형성 시도는 서에게와 학봉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현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여기에는 학봉계와 서에게가 서인세력과 文廟從祀 논쟁과 服喪 논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퇴계학파의 공론결집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도 고려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언기의 처사적 학풍은 독자성과 결속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한 채 단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후 퇴계학파가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상황

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처사형 학풍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모순된 현실에 비판적 자세를 견지한 가운데 修身을 통한 道學者의 면모를 갖춘 김언기의 현실인식과 대응자세는 퇴계학파의 학풍을 규정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資料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惟一齋實紀』(金彦璣) 『龍山世稿』(金彦璣 등) 『退溪全書』(李滉) 『武陵雜稿』(周世鵬) 『月川集』(趙穆) 『西厓集』(柳成龍) 『鶴峯集』(金誠一) 『賁趾集』(南致利) 『松巖集』(權好文) 『文峯集』(鄭惟一) 『南嶽逸稿』(金復一) 『敬堂集』(張興孝) 『葛峯集』(金得研) 『梧峯集』(申之悌) 『苟全集』(金中淸) 『拙齊集』(柳元之) 『百拙庵集』(柳稷) 『溪巖日錄』(金玲) 『二愚堂集』(權奭) 『光山金氏退村公派族譜』 『退溪書集成』 『陶山及門諸賢錄』 『盧江志』 『嶺南人物考』 『臥龍面誌』

※ 論著

沈載完, 『定本 時調大全』, 一潮閣, 1984
 李鍾虎 外, 『安東의 선비文化』, 아세아문화사, 1997
 薛錫圭, 『南冥學派 政治哲學 研究』, 남명학연구원, 2001
 安東大學校 安東文化研究所, 『청량산 문화유적 학술조사 보고서』, 2000
 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是非」3, 국민대사학과, 1993
 薛錫圭,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犯 運動과 그 性格」『朝鮮史研究』3, 조선사연구회, 1994
 한희숙, 「16세기 임격정 난의 성격」『韓國史研究』89, 한국사연구회, 1995
 金盛祐, 「16세기 國家財政 수요의 증대와 國役體制의 해체」『韓國史研究』97, 한

구사연구회, 1997

金鍾錫,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자의 범위」 『韓國의 哲學』26,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8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17세기초 嶺南土族 動向의 一端-』,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1998

金鶴洙, 「盧江書院과 嶺南學統 -17세기 초반의 廟享論義-」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薛錫圭, 「16세기 嶺南學派의 朋黨認識과 公論形成」 『退溪學』11, 안동대 퇴계학연구소, 2000

薛錫圭, 「17세기 理氣心性論 발달의 역사적 의미」 『國史館論叢』93, 국사편찬위원회, 2000

<丑> 惟一齋 金彦璣 門人錄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1	白仁國	大興	1530	德瞻	足間堂	寧海	教授, 壬辰倡義	
2	權昌緒	安東	1536	振叔		府西金地		
3	安夢說	順興	1539	應賚	文化	府東寺谷	白衣書狀官, 僉知	
4	權 任	醴泉	1539	士重	松澗亭	佳野	生員, 參奉	
5	南致亨	英陽	1540	養仲	養眞堂	府內	生員	
6	金允濟	順天	1540	汝樞		豐山		
7	李 僕	永川	1541	君舉		佳野		
8	金士亨	安東	1541	士美		眞寶	文科, 直長	
9	權 誥	安東	1542	士信	梅隱	豐山	進士	
10	安萬誥	順興	1542	可信		臨河馬邑		
11	朴 灑	丹山	1543	希舌		〃 棄仕里		
12	南致利	英陽	1543	義仲	賁趾	府內		魯林書院
13	柳光春	晉州	1543	季仁		九潭		
14	白見龍	大興	1543	文瑞	惺軒	寧海	生員	雲山書院
15	金 坦	光山	1543	汝平		禮安		
16	李 侃	永川	1544	士行	阿休亭	佳野	訓導	
17	鄭希天	清州	1544	誠之		茅沙洞		
18	權春桂	安東	1544	彦秀		佳邱	教官, 贈吏曹判書	
19	張慶業	仁同	1544	榮伯	橘叟	義城	遺逸, 贈通德郎	
20	琴 潔	鳳城	1544	滌卿	二樂堂	禮安	宣傳, 壬亂赴火旺山城	
21	權 均	安東	1545	平甫		茅沙洞		
22	鄭士誠	清州	1545	子明	芝軒	馬巖	進士, 參奉, 縣監	鶴巖社
23	權 訥	安東	1545	士明		佳野		
24	李 典		1545	士厚		榮川		
25	安夢周	順興	1545	景城		臨河	訓導	
26	金得礪	光山	1545	致精	道峰	九潭	生進	
27	金慶鸞	安東	1545	雲老	樂天堂	佳野		
28	權 暉	安東	1545	君晦	松窩	道村	訓導, 贈參判	
29	許應周		1546	夢吉		九潭		
30	朴世龍	咸安	1544	仲雲	棣軒	寧海		
31	鄭伯俊	清州	1547	君彦		茅沙洞		
32	金 翌	光山	1547	顯甫	愚巖	九潭	生員, 參奉	
33	南致貞	英陽	1547	藏仲		府內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34	金 圻	光山	1547	止叔	北厓	禮安	參奉, 贈監察	
35	申天民	寧海	1547	士先		寧海		
36	權 訥	安東	1547	士敏	梅軒	佳野	進士, 爲先生構遠光精舍	
37	琴順先	奉化	1547	汝若		乃城		
38	李 坦		1547	士平		榮川		
39	安萬諧	順興	1547	汝和		臨河馬邑		
40	鄭希聖	清州	1548	敬之		茅沙洞	護軍	
41	申俊民	寧海	1548	士秀	雪月堂	寧海		
42	孫興禮	慶州	1548	君立	三省堂	花谷	生員	
43	裴 琬		1549	景潤		臨河伐於		
44	權山斗	安東	1550	君仰		榮川		
45	李 信	永川	1551	士立		佳野		
46	孫守禧		1551			勿野		
47	李夢鯉	永川	1551	文瑞		加麻		
48	南義祿	英陽	1551	季綏		寧海	壬辰勳陞判官, 賜功臣錄券	
49	南 瑜	英陽	1551	士美		新陽	僉樞	
50	金 址	光山	1551	景建		禮安	判事, 內資寺正	
51	權 暉	安東	1552	叔晦	玉峰	道村	文科, 正郎	道溪祠
52	朴 洽	丹山	1552	希源	石林	棄仕里		
53	安 潑	廣州	1552	達源	芝巖	九潭	進士	
54	李陽復	永川	1552	善初		加麻		
55	禹光先	丹陽	1552	子述		臨河本谷		
56	李德承	永川	1553	伯據		禮安		
57	趙承先	漢陽	1553	彥述		臨河伐於		
58	孫 緝		1553	丕承		寧海		
59	朱 植	新安	1553	景立	魚臺	寧海		
60	金舜龍	安東	1553	汝尹	漁川	眞寶	壬辰倡義赴火旺山城	
61	黃龍變	平海	1553			寧海		
62	沈 謙	青松	1553	益之		才山		
63	權得說	安東	1553	味道		松川		
64	具忠胤	綾州	1554	允甫		茅沙洞		
65	安 泳	廣州	1554			九潭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66	禹錫祿	丹陽	1554	季綏		府東寺谷		
67	權得尹	安東	1554			府東寺谷		
68	李 珮	宣城	1555	玉爾	市隱	豐山	主簿	
69	權斗章	安東	1555			豐基		
70	李榮春		1555	汝華	烟花	寧海		
71	朴毅長	務安	1555	士剛	清慎齋	寧海	武科, 兵使, 諡武毅	九峰書院
72	金得研	光山	1555	汝精	葛峰		生進, 贈司憲府執義	
73	李忠節		1555			榮川		
74	權得可	安東	1556	時中	晚晦	嘉灘		
75	權慶生	安東	1556	仲時		佳邱	僉正	
76	鄭仲俊	清州	1556	君英		長水洞		
77	李景鯉	永川	1556	君瑞	種德	加麻	奉直郎, 司宰監, 僉正	
78	金安繼	義城	1556	順伯	梅隱	一直	宣武郎, 軍資監主簿	
79	朴宗胤	潘南	1556			郡邑		
80	朴大胤	潘南	1556	士述		郡邑		
81	具善胤	綾州	1556	裕甫		茅沙洞	從仕郎	
82	安夢呂	順興	1556	君望		府東寺谷		
83	朴應天	寧海	1556	景遇		寧海	有衛聖惠衆之功	
84	李 圭		1557	君信		榮川		
85	金 垆	光山	1557	器仲	雪厓	禮安	生員, 察訪	
86	柳 漢	晋州	1557	天章		龍宮		
87	金餘吉		1557	季祥		臨河伐於		
88	李 偉	永川	1558	士豪		佳野	軍資監奉事, 贈掌樂院正	
89	南仁壽	英陽	1558	榮老		西澗		
90	具誠胤	綾州	1558	一甫	午巖	茅沙洞		
91	朴 珩		1558	伯玉		沙里		
92	權山海	安東	1558	大受		禮安		
93	南邦彦	英陽	1558			一直		
94	安 浩	廣州	1558			豐山		
95	南靖邦	英陽	1558	正則		寧海	薦授參奉	
96	趙承緒	漢陽	1558			臨河伐於		
97	柳河龍	豐山	1559	叔見	慕河堂	豐基		
98	鄭季俊	清州	1559	汝彦		茅沙洞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99	張中機		1560	君省		一直		
100	朴世胤	潘南	1560	丕述		郡邑		
101	南希杓	英陽	1560	而敬		一直		
102	權從可	安東	1560	執中		佳野		
103	李 遲	固城	1560	器成	博山	府內		
104	朴 澱	丹山	1560	希清	岐園	棄仕里		
105	安 涉	廣州	1561	汝舟		九潭		
106	申之孝	鵝州	1561	達夫	鷹巖	義城	壬亂 당시 戰死	
107	禹致勤	丹陽	1561	子逸	南溪	臨河本谷		
108	金得璫	光山	1561	益精	晚翠		2子	
109	裊三畏	興海	1561	汝敬		乃城		
110	孫興謙	慶州	1561	君益	石厓	石山		
111	禹致文	丹陽	1562	汝敷		臨河本谷		
112	申之悌	鵝州	1562	順夫	梧峰	義城	文科, 仁廟改王拜承旨不起	藏待書院
113	朴仲胤	潘南	1562	景述	洛涯	郡邑	生員	
114	崔見龍	慶州	1562	德施		郡邑		
115	權克昌	安東	1562	續叔		佳野		
116	南興達	英陽	1562	顯卿	慕庵	一直		
117	李 遵	固城	1562	憲成		府內		
118	金光道	光山	1562	士修	東籬	禮安		
119	南希柏	英陽	1562			一直		
120	趙大承	漢陽	1562			臨河伐於		
121	金介明		1562			榮川		
122	呂俊民		1562			乃城		
123	權興仁	安東	1564	安伯		松鷹		
124	裊 瑾	興海	1564	士實		佳野		
125	金得璫	光山	1564	景章		九潭		
126	金介一		1564	守道		榮川		
127	裊三戒	興海	1564	汝慎		乃城		
128	權 杠	安東	1564	公舉	方潭	豐山	生員, 薦授洗馬	雲溪里社
129	金得砬	光山	1564	應精		九潭		
130	安 澈	廣州	1564			九潭		
131	朴 琨		1564	仲玉		榮川		
132	權用可	安東	1564	擇中		佳野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133	金光纘	光山	1564	纘仲	灣溪	禮安		
134	李 琚	公州	1564	君玉		佳邱		
135	安碩龍	順興	1564	君會	樂齋	寺谷	進士, 博士	
136	金成潤		1564			榮川		
137	南隆達	英陽	1565	顯彦	懶齋	一直	贈左承旨	鳳巖祠
138	南太華	英陽	1565	士鎮	雲礪	一直		公山祠
139	趙大仁	漢陽	1565			臨河伐於		
140	孫興世	慶州	1565	汝俊		義城		
141	具 浹	綾州	1565			榮川		
142	李 適	固城	1566	立夫		府內		
143	金仁吉		1566	吉甫		佳野		
144	申之信	鵝州	1566	立夫		豐山		
145	南景适	英陽	1566	謹夫		義城		
146	張希載		1566	思哲		台藏		
147	申 浹		1566	澤遠		台藏		
148	南山壽	英陽	1566			寺谷		
149	尹東賢	德山	1568	希聖		禮安		
150	安景澤	順興	1568	士洪		佳邱		
151	朴泰亨	潘南	1568	應會	韶隱	義城	參奉	
152	金成澤	宣城	1568	而晦		榮川		
153	李 儼	永川	1568	士恪	仙巖	眞寶	訓導, 義禁府都事	
154	權 守	安東	1568			牛頭山		
155	朴文潤	義興	1568	士彬	星谷	義興		
156	丁汝翼		1568			義城		
157	趙守道	咸安	1565	景望	新堂	青松	司僕寺正	
158	申 緝	鵝州	1568			義城		
159	權 混	安東	1568	景源	反求齋	佳邱	從仕郎	
160	李永郁	永川	1568	文遠		佳野	奉事	
161	趙承元	漢陽	1568	仁述		臨河伐於		
162	玉無玷	宜寧	1568			吉安		
163	金 訥	光山	1568	忍夫		九潭		
164	金友仁	宣城	1568	子輔		榮川		
165	南太別	英陽	1568	子紀	晴川	一直	將仕郎, 壬辰倡義	公山祠
166	權泰一	安東	1569	守之	蘆川	佳邱	進士, 文科, 參判(又號藏谷)	

	姓名	本貫	生年	字	號	居住地	經歷	備考
167	趙健	漢陽	1569	汝強	蓮潭	英陽		
168	南起龍	英陽	1569	雲瑞		吉安		
169	李 迥	固城	1569	近夫	繁巖	府內		
170	權 宗	安東	1569	汝興		佳野		
171	張天福	仁同	1569	士善		醴泉		
172	柳 淙	晋州	1569			九潭		
173	李 洽		1569			九潭		
174	柳 浩	晋州	1569			九潭		
175	金得礪	光山	1570	義精	晴翠		3子, 生員	
176	鄭錫胤	清州	1570	述夫		茅沙洞		
177	琴 振	奉化	1570	聲遠	誠庵	乃城		
178	李 建	固城	1570	志成		府內		
179	權友直	安東	1571	敬甫	花岑	佳野	壬辰倡義 以勳賜錄券	
180	趙大修	漢陽	1571	而述		臨河伐於		
181	李 淳		1571			九潭		
182	琴 機	奉化	1573	子開	守靜齋	禮安		
183	朴文淹	義興	1557	士中	星巖	義興	生員	
184	權友亮	安東	1575	信甫	儉巖	佳野		
185	印之龍		1575			榮川		
186	印之龜		1575			榮川		
187	趙遵道	咸安	1576	景行	方壺	青松		
188	李誠郁	永川	1577	文一		佳野		
189	李時郁	永川	1577	文伯		佳野		